

Jeonju 20 Intl. Film Festival
2019.05.02 _ 05.11

사회자인 배우 최원영 · 한예리 등
176명의 배우 · 감독 레드카펫
개막작 '나폴리' 로 관객과 만나
11일까지 52개국 영화 262편 상영

국제영화제 개막... 열흘간의 '시네마 여행' 돌입

한예리를 비롯해 176명의 배우와 영화감독이 레드카펫을 밟았다. 레드카펫 행사에는 영화 '템프시탈'에 출연한 해리와 영화감독으로 변신해 '웅알스'를 연출한 배우 차인표,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선정작 '국도극장'에서 열연한 배우 이동휘 등이 참석했다. 또 드라마 'SKY 캐슬'로 이름을 알린 배우 김보라와 영화 '죽도 서핑 다이어리'에 출연한 배우 전혜빈 등도 초청됐다. 개막식 이후에는 클라우드 조반네시 감독의 '나폴리: 작은 강들의 도시'가 관객들을 만났다. 이 영화는 '고모라'의 원작자로 널리 알려진 로베르토 사비아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질주하는 청춘들의 모습과 이면을 고전적인 스타일의 영상미를 통해 표현하고 성장의 이면을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누아르 스타일로 그려냈다. 한편 올해 영화제는 11일까지 세계 52개국 영화 262편(장편 202편 · 단편 60편)이 관객과 만난다. /송효철 기자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이 2일 전주시 옥토주차장 전주 돔 상영장에서 실시된 가운데 개막작을 관람하기 위해 모여든 시민과 관광객들로 장내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가 2일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간의 시네마 여행에 들어갔다. 전북 전주시 고사동 영화의 거리 옥토 주차장에 마련된 '전주 돔'에서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에 앞서 사회를 맡은 배우 최원영과

제20회 국제영화제 개막작 '나폴리: 작은 강들의 도시'

"8명 배우 캐스팅에서 오디션만 무려 4000여명"

조반네시 감독 "10대 순수성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

"10대의 순수성을 표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캐스팅이었다. 그래서 8명을 뽑기 위해 4000여 명의 사람을 만났다." 2일 오후 전북 전주영화제작소 전주디지털립영화관에서 열린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나폴리: 작은 강들의 도시' 기자회견에서 클라우드 조반네시 감독은 이렇게 밝혔다. 이탈리아 로마 출신인 조반네시 감독이 내놓은 이 영화는 지난 2월 열린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각본상)을 받아 화제를 모았다. 이 영화에서는 니콜라를 비롯한 열 명의 10대 소년들이 어른들의 마약 밀매 사업을 도우며 세력을 늘려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 영화는 '고모라'의 원작자로 널리 알려진 로베르토 사비아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질주하는 청춘들의 모습과 이면을 고전적인 스타일의 영상미를 통해 표현하고 성장의 이면을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누아르 스타일로 그려냈다. 조반네시 감독은 "전작 플라워 때(2017년)도 영화제에 초청된 데 이어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에 선정돼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다"며 "한국은 첫 방문인데 유럽 이외의 문화권에

영화를 소개하게 돼 영광"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 영화는 남부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지만 보편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10대 아이들이 개인에서 시작된 어떤 이야기와 사건들로 인해 순수함을 잃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영화에는 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비전문 분야에서 배우 캐스팅을 진행했기 때문에 8명을 뽑기 위해 4000여 명을 만났다"면서 "오디션을 진행하면서 듣게 된 이야기 일부를 이 영화에 녹였다"고 덧붙였다. 전작인 '플라워' 작품과 마찬가지로 10대 이야기를 다룬 것에 대해 "10대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세 가지"라며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는 것과 10대가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 때 이때의 아이들이 선택과 약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어른이 되어 이성적일 때와 다른 순수하고 강렬한 감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반네시 감독은 '고모라' 작품을 소재로 한 이유에 대해선 원작자인 로베르토 사비아노의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나폴리: 작은 강들의 도시' 기자회견이 2일 전주시 전주디지털립영화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클라우드 조반네시 감독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작품을 영화화할 때는 고모라

와 같은 범죄 영화 누아르 시리즈가 아닌 소년들의 감정에 포커스를 둔 영화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면서 "이 영화는 범죄자들의 마약 세계가 아닌 순수함을 잃어가는 소년들의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영화 장면 중 주인공인 니콜라가 여장하고 마약 밀매 사업 조직 중 한 명을 암살한 뒤 집으로 돌아와 화장을 지우는 장면은 시나리오 구조상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직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10대에 관한 이야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개 · 폐막작 모두 순수성을 상실했을 때 풀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며 "이는 역사적으로 20년간 가져왔던 정신을 잃었을 때 더는 좋은 영화제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 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가져왔던 정신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이고 한단계 성장해서 진정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화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이번 개막작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영화제는 이날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세계 52개국 영화 262편(장편 202편 · 단편 60편)이 관객과 만난다. /송효철 기자

'세상의 소리 전주의 소리'

전주소리문화관 5일 연희극 히히냥락 공연

전주소리문화관(관장 유현도)에서는 상설국악공연 '세상의 소리 전주의 소리'가 5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관객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공연으로 오는 5일에는 '전통연희극 히히냥락'이 울려진다. 이 공연은 우리 지역 고유한 역사화 문화를 어우르는 소재와 이야기를 전통공연예술의 다양한 장르와 접목하여 종합예술체트와도 같은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어른들에게는 감동과 추억을, 아동 · 청소년들에게는 생생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전통연희극 히히냥락'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소리문화관 상설국악공연 '세상의 소리 전주의 소리'는 히히냥락 공연 외에도 지역의 젊은 국악인들을 초청하여 판소리, 민요, 시나위, 기악산조, 전통무용, 사물놀이 및 판굿 등 다양한 국악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료는 1만원으로 사전에매 시 20% 할인이 적용된다. 동절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는 기후관계로 대청마루 실내공연으로 진행되며, 공연시간은 토요일 오후 5시로 변경될 예정이다(공연문의 063-231-0771). 한편 전주소리문화관 상설국악공연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21회의 공연에 약 2천명이 유료관람하면서 전주소리문화관이 전주한옥마을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은성 기자

완주 갈동유적 출토품 국가 보물로 지정된다

갈동 거푸집, 최초로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돼 청동거울, 우리나라 청동기 제작기술 정수 보여줘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이 소장하고 있는 완주 갈동 유적 출토 동검 · 동과 거푸집과 청동거울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다. 갈동 유적은 초기철기시대(기원전 3세기~기원전후)의 분포 유적으로 2003년과 2007년 2차례에 걸쳐 호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서 발굴조사됐다.



이 유적에서는 모두 17기의 움무덤과 함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는데, 특히 청동기와 철기가 함께 나와 한반도 서북지역의 철기문화가 한강 이남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1호 무덤에서 출토된 동검 · 동과 거푸집은 2개를 붙여 청동솥틀을 부어 청동기를 만드는 합법(合范)이다. 한 점은 한쪽 면에만 동검(銅劍) 깎의 거푸집을 새겼고, 다른 한 점은 동검과 동과(銅戈, 창)의 형태를 각각 양면에 새겼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출토된 청동기 거푸집은 10여 점이 있으나, 출토 상황을 알 수 없는 발견품인데 반해, 갈동 유적 거푸집은 최초로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매우 크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제46회 춘향국악대전이 오는 10일부터 3일간 열린다.

춘향국악대전 10일부터 3일간 남원서 개최

제89회 춘향제와 함께 대한민국 명인 명창의 등용문인 제46회 춘향국악대전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열린다. 춘향국악대전은 수많은 명인 명창을 배출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인의 향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제89회 춘향제전 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대한민국춘향국악대전 위원회가 주관하고, 경연 종목은 판소리 명창부, 일반부, 학생부, 민요, 무용, 관악, 현악 · 병창, 신인부 등 8개 부문으로 나누어 대회가 이루어지게 된다. 판소리 부문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상과 2,000만원을 상금이 주어지며, 최우수상에는 전북도지사상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은 남원시장상과 2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지고, 일반부 종합대상은 국무총리상과 상금 300만원, 국희회장상과 상금 3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3개)과 상금 200만원씩이 각각 돌아간다. 박형석 대회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해 국악인들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통문화와 민족예술인 국악의 위상을 한껏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11일 토요일 오후 1시와 3시에 광한루각에서 펼쳐지는 '판소리, 보물위에 서다'의 공연에서는 춘향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창들이 춘향가를 비롯해 심청가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12일 오후 5시 사랑의광장 무대에서는 춘향국악대전에서 배출한 명인 명창들의 '명인 명창 국악대향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어우렁더우렁 멋과 기로 놀자" 내일 '동부권 산골음악회'

(사)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사장 송병섭)가 4일 제7회 동부권 산골음악회를 4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시계탑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산골음악회는 '어우렁더우렁 멋과 기로 놀자'라는 슬로건 아래 꽃과 청록이 어우러진 5월에 싹트는 재미와 멋과 맛을 선사한다. 산골음악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부권 지역 30여 동호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전시 ·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임실=진중영 기자

